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7일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종합토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소통과 협력으로 하나되는 전북

도 - 새만금개발청, 합동 워크숍 개최... 기관별 주요 현안 공유 · 종합토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7일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종합토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8개 기관(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인종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의 공동주재로 열렸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현황 및 계획, 부지 매립 사업을 포함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 POST 2020 새 개발구상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사업은 최근 큰 틀에서 지역상생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선

도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육상태양광(200MW) 추진방안을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표했다. 또한, 2023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1단계 개발 종표시점(2020년) 도래에 따라 2단계(2021년이후) 개발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에 반영하기 위한 POST 2020 새 개발구상 마련 연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테스크포스(TF) 구성 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오는 8월 예정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개최와 2022년 국립 새만금박물관 개관에 대비한 소장품 확보, 새만금 신교통특구(육(陸) : 자율주행, 해(海) : 위그선, 공(空) : 드

론)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 등에 대해서도 열린 토의가 이루어졌다.

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새만금이 내부용지 매립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사업 외에도 개별사업들이 속속들이 추진되고 있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며, "유관기관이 한 데 모여 논의하는 합동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인종환 차장은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 및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새만금개발의 성공적 수행이란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새만금 개발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함열 · 부안 향교, 문체부 시설개선사업 공모 선정

함열향교(익산)와 부안향교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향교·서원 시설개선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북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재조명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향교·서원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17개 광역 시도별로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서, 사업추진능력, 재원분담 비율 등을 고려해 전국 9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함열향교는 대성전의 화장실 노후화

로 인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대성전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이다. 부안향교는 강화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양사재, 명륜당, 만화루 3개동 모두 협소하고 벽과 창호 등이 단열과 방음에 취약해 향교 일일학교, 유교아카데미 등의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향교는 이번 사업 공모 선정으로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와 전통 문화 교육장으로서 향교 기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전통유교문화 체험 및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향교가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자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교·서원 시설개선사업은 향교와 서원 내 교육·편의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2013년 운봉향교, 2015년 남원향교, 2017년 임실향교, 2018년 전주향교가 사업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전북도 운동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함열·부안 2개소의 향교가 선정되어 향교·서원의 문화 관광자원 개발과 육성에 힘을 보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친환경 선도하는 모범기업으로 김제 경제에 '활력'

디에스아이 - 더원솔라, 김제지평선일반산단에 신규 투자
태양광 부품 등 사업영역 확장... 사업다각화 · 경쟁력 모색

전북도와 김제시가 도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평선일반산단에 신규 사업 안정화의 기틀을 다진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지난 17일 김제시청 상황실(2층)에서 박준배 김제시장,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디에스아이·(유)더원솔라와 김제지평선일반산단에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디에스아이는 김제지평선일반산단 18,021.2㎡(5,451평 정도) 부지에 205억원 투자, 41여명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며, (유)더원솔라는 같은 산단 11,186.6㎡(3,384평 정도) 부지에 55억원 투자, 25명 고용을 창출할 예정으로 이 두 기업의 투자

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도내 지역 취업난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주)디에스아이는 지난 2010년 창립 이후 각종 폴리에틸렌(PE) 파이프(PPE) 및 이음관을 생산해오고 있는 배관자재 전문 생산기업으로 기술력 강화, 고객만족 강화, 특화된 제품으로 고객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신제품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노력하고 있다.

다음세대에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이자 책임인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중심시대에 부합하는 최상의 품질,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임직원 모두가 헌신체제가 되어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더원솔라는 설립된 지 3년 미만 창업법인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부품인 수상부유물 구조체를 생산하여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주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전북도와 김제시도 디에스아이와 더원솔라가 우리 도에 투자하길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최상의 품질, 최고의 제품을 공급해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최용범 행정부지사, 격포항권역 사업현장 실태점검

전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지난 17일 격포항권역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격포항을 방문해 아름다운어항 조성사업 및 배후마

을권역 거점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격포항 연안정비사업 및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최용범 부지사는 격포항권역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도내 대표 관광지이지만, 특색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격포항권역 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도약은 중소기업과 함께”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 시상식 개최
전북경제 빛낸 주인공 9명에 공로패 수여
기업 경영개선 위한 보조금 3400만원 지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7일 르윈호텔에서 2019년도 전북도 우수 중소기업인 9명에게 상패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우수중소기업인상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도내 중소 제조업체 및 경제단체의 대표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매출성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경제단체 등 7개 부문 9명을 선정한다.

올해의 선정기업은 △고용창출 부문 울현공업(주), 한국특수가스(주), 한실어패럴 △지역발전공헌 부문 (주)제성 △우수신제품개발 부문 (주)혜성 지테크 △장수기업 부문 영창섬유공업사, 오성푸드 △창업기업 부문 농업회사법인인유한회사피오레 △경제단체 부문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이다. 이 가운데 장수기업 부문의 영창섬유공업사는 도내 37년간 섬유업종에

종사하였고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으로 고품질의 내의류를 생산하여 국방부에 납품해온 업체이다. 봉제에 숙련된 여성근로자가 많은 여성친화기업이며 관련 업계에 섬유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 부문의 농업회사법인인유한회사피오레는 대표의 베이커리 분야에서 쌓아온 오랜 경험과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편의점용 디저트 케이크를 개발하여 히트상품으로 만들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기업이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전북도 우수 중소기업인상은 도내 곳곳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기업인들의 관심이 뜨거워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전북도는 도내 우수중소기업의 많은 참여와 공정한 선발을 위해 전북도 홈페이지 등에 평가기준을 사전 예고하고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도내 시군 및 경제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전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신 중소기업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자분들께 축하를 전한다"면서, "중소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고,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워가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때 지역경제가 선순환하고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유망중소기업 → 도약기업 → 선도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구축 완료로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돕고,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제품 판로개척,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상담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